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출발! 전교인 가족수련회

- 내일(25일) 새벽 6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

'94 전교인 가족수련회가 드디어 내일 시작된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 나라와 가정공동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참된 모습을 재조명해 보고 우리 가정의 현재를 진단해 보며 잘못된 부분을 찾아 치유책을 모색해보는 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영적 훈련의 기회가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신앙훈련을 하며 많은 성도가 한정된 공간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밀도있게 수련하는 이 기간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성숙한 모습도 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집은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 **질서와 절제의 미덕을 실천**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과 다소 시끄러운 시국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질서를 지키는 일에 모범을 보이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립보서 2장 4절)

▶ **못가는 성도들을 위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는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오전 11시에 드리는 수요 I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오후 7시에 1회만 드린다. 수련회를 가는 성도들은 못가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을,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수련회의 은혜롭게 진행될 것을 위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 5시 30분까지 집합완료

출발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6시에 하지만 교구별, 교회학교별로 인원을 점검하고 분승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적어도 5시 30분까지는 잠실 운동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6시에 20대의 버스가 출발하면서 버스 안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된다.
반드시 지정받은 차량에 승차하고 휴게소에서 정해진 시간을 엄수하며 휴식 후 재탑승할 때에는 차량 앞, 뒤에 부착한 번호를 잘 확인해야 한다. 개인행동은 삼가고 기회있을 때마다 전도하며 버스 안에서의 시간도 말씀 묵상과 기도, 성도의 교제를 위한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하자

▶ 개인별 준비물 - 최소한으로

출발 당일 아침과 점심식사는 각 가정별로, 다락방별로 준비한다.
개인별 준비물은 성경책과 찬송가, 워크북과 필기구, 유니폼을 입은 간편한 옷차림, 갈아입을 옷, 수영복, 긴팔 옷 등이며 그 밖에 개인 소지품은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번에는 가족별 텐트촌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가능한 가정에서는 텐트를 가져오도록 한다.

▶ 수련회 기간 중 비상 연락

수련회 기간 중 교회에 알려야 할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교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517-7651 ~ 5).
그리고 삼척 수련회 본부에 설치된 두 대의 임시 직통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 0397/574-6808, 0397/574-6675)

▶ 감사가 넘치는 수양회로

구원의 감격과 성숙에의 감사, 형제와의 연합에서 얻는 기쁨이 우리 무리에서 넘쳐나는 수양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 이번 수련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변화한 자신과 가정을 생각하며 폐회예배(28일)에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



▲ 출발에 앞서 머리 숙인 봉사자들

◀ **선발대 출발** / 현지인들과의 섭의, 숙소 설치, 모기장 설치, 샤워 시설, 음향 및 영상 시설, 임시 전화 개설 등의 일들을 하려고 지난 21일 오후와 22일 새벽에 선발대가 많은 짐을 싣고 출발했다. 수련회에 참석할 성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마음으로 숨막힐듯한 폭염 가운데에서도 갖은 일에 기쁘게, 묵묵히 구슬땀을 흘린 몇몇의 봉사자들 덕분에 보다 안락한 수련회를 맞이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창세기 강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 ~ 2절)

이종운 목사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신앙 모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이삭과의 관계를 포함한다면 36장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분량 상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1. 믿음의 사람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을 말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시킨 지도자 여호수아, 다윗,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 선지자 중의 대명사인 엘리야 등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며 그들이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육신적으로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영적으로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타난 구원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을 바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 가운데서 그를 최초로 의로운 사람이라 불러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15:6)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임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가르쳐 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열매였음을 누가복음 1장 68 ~ 73절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신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신득의(以信得義)’의 교리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행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왔다’(갈 2장) 하는 교리를 바울로 하여금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여준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하나님께서 세번

씩이나 그를 친구라고 불러 주셨는데(대하 20:7, 사 41:8, 약 2:23) 이것은 그에게 어떤 훌륭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 보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신앙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순종은 불가능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그 믿음대로 행했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종의 믿음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 은혜 받은 사람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설만한 어떤 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을만한 믿음도 없었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불러 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롬 3:10) 라는 말 속에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불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했는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보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3. 말씀만 좇아간 사람

종교개혁의 삼대 원리가 있다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1절) 라는 구절에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말합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또한 ‘떠나라’는 말씀은 과거로부터 철저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과거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토는 갈대아 우르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나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문화와 생활습관이 다른 곳, 재산도 생명의 안전한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셔서 가족관계까지 절연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이 세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성별(聖別) 복거룩함을 위해 구별되어야함을 이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사람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聖徒)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미 성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킬리 ✧

여가선용

물밀듯이 밀려오는 군중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시어 잠시 휴식을 취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해 본다. 일에만 몰두하여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마치 빨래바누 물에 들어 없어지듯 자기소모만을 해오던 사람에게 여가를 갖고 자신을 돌아보며 지난 일과 다퉈 일을 정리 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 삶에 중요한 활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별 할일도 없이 소일이나 하던 이들이 휴가철이 되었으니 산과 들로, 심지어는 외국으로까지 놀러가자는 식의 휴가계획은 아무래도 낭비요 자기 기만인 것 같다. 소득보다 소비율이 점증되는 가운데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는 때에 무덤덤한 이유만으로 휴가쁨을 조장이라도 하듯 언론사들까지 보도에 열을 올려 휴가못가는 사람은 마치 무능력자라도 된 것처럼 만드는 것은 생각에 불문제인 것 같다.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생산적인 휴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 휴가 계획이 있어야겠다.

부흥회를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

첫째날

“즐겁게 사는 길”

본문 전도서 9장 9절

개요 솔로몬은 이른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즐겁게 살라”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삶은 이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기쁨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을 회복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 마음의 세계를 탐구하고 기쁨의 회복 방법을 모색해 본다.

둘째날

“나와 다른 것은”

본문 누가복음 10장 38 ~ 42절

개요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다툰다. 표현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 안에서 부부도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자주 다툼과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다툼’을 안다는 것은 결혼 생활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남·녀의 차이, 수용과 거절에 대한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다룬다.

셋째날

“참 좋은 만남”

본문 빌레몬서 1장 1 ~ 7절

개요 현대인들은 관계장애에 시달린다. 진정한 만남이 적다. 결혼 속에서도 결혼한 독신녀, 결혼한 독신자가 있을 수 있다. 많은 만남 가운데서도 부부의 만남은 신비에 속한 것이다. 이 신비로운 만남을 잘 가꾸어 나가는 지혜를 터득할 필요가 있다.

만남의 선택과 결혼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선택해서 듣는 특강 - 우리 가정의 주인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특강 I

“청소년문제와 가정교육”

- 문제 청소년 뒤에 문제 부모 있다? -

강사 / 김 용 진 박사(사랑의 연수원 원장)

문제 청소년이 진단하는 청소년 문제의 원인, 문제 청소년과 가정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누구나 다 아는, 그러나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재고와 ‘거의 거론되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행해야 할 성경적인 가정 교육의 목표’를 다룬다.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가정 교육현장에서 찾아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의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실천 하자는 비폭력적 문제 해결과 화목케 하는 삶의 방식을 소개한다.

특강 II

“가정공동체: 결혼과 부부의 행복”

- 부부 행복 만들기 -

강사 / 심 상 권 박사(한국 기독교 상담문화 연구원 원장)

부부와 결혼에 대한 성서적 의미와 본질에 대하여, 부부와 결혼의 현대적 관점에서의 변화와 갈등, 남편과 아내의 정신건강과 부부 행복의 함수관계 등에 대해 고찰하고 행복을 만드는 도구로서 대화의 지혜, 분노와 갈등의 처리법, 계획적인 행복만들기를 위한 노력뿐 만 아니라 성생활, 바른 신앙생활 지키기 등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상실되었거나 상처받은 남편 혹은 아내의 자긍심을 건전하게 높여주기 위한 실제적인 지혜를 다룬다.

특강 III

“산업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성(性)”

- 성은 본래 하나님의 설계였다 -

강사 / 송 길원 박사
(기독교 가정사역 연구소 소장)

급변하는 산업화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 개인의 자유가 우선되고 가정의 권위가 경제력에 의해 재평가되며 비통합화, 비조직화되어 가는 현대의 가정에서 성 신학(性 神學)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성경의 요구를 살핀다. 일그러진 성은 성에 대한 공포심과 극도의 수치심, 불안을 초래하며 결국에 가서는 결혼을 깨뜨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에 대해 바른 시각을 가지는 일과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함을 이 강의에서 배우게 된다. 즉, 신비하고 아름다우나 다스림이 필요한 성에 대해 청지기적 자세가 어떠해야함을 알게 될 것이다.

특강 IV

“기독교 가정과 교회생활”

-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

강사 / 김 향 숙 선생
(가정사역자)

창조사역의 완성인 가정과 구원사역의 완성인 교회는 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가정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을 협의의 가정으로, 교회를 광의의 가정으로 보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의 참된 모습을 언어의 영역을 중심으로 조망해 본다.

특강 V

“의학윤리”

- 성경을 신앙과 윤리의 표준으로 삼아 -

강사 / 이 종 윤 목사
(서울교회)

현대의학의 혁신적인 발달은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죄성에 오염된 인간에 의해 오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임신중절과 낙태, 피임, 안락사, 시험관 아기, 기관이식, 태아의 성감별 문제,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 등 의학윤리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 규범적 측면에서 책임을, 실존적 측면에서 인간의 필요와 권리와 의무를, 그리고 상황적 측면에서 의학윤리에 대한 전통적 대답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되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 답을 찾아본다.

“유니폼을 받아가세요.”

- 현관에서 교회학교별, 교구별로 배부-

'94 전교인 가족수련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수련회 기간 중 일체감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유니폼을 마련하였다. 남자는 초록색, 여자는 노란색이며 장년부터 교회학교 학생까지 불편함없이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로 준비하였다.

유니폼은 오늘 각 부서 대표 혹은 교구별 담당자가 교회학교별, 교구별로 등록을 마친 성도의 성별과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찰, 워크북과 함께 본당 현관의 접수처에서 받아가면 된다.

오늘 받은 유니폼은 내일 새벽부터 착용한다. 명찰도 항상 목에 걸어 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이번 기회에 많은 성도들과 사귀며 서로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자. 워크북도 수련회의 순조로운 진행과 은혜를 간직하는 일에 잘 활용하자.

'94 하반기 장학생 선발

- 8월 14일까지 사무국에 신청 -

천국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회(회장: 이남호 장로)에서는 1994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부서 지도 교역자와 부장 혹은 교구담당교역자의 날인을 받은 추천서를 성적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8월 14일(주일)까지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민족복음화를 위한

농촌 전도단 파송

- 8월 1일 ~ 3일, 충북 청원군 은성교회 -



선교위원회 농어촌 선교분과와 70인전도단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충북 청원군에 있는 은성교회로 전도단을 파송한다. 전도단이 파송될 강외면 만수리에는 5개 마을에 450호 1200명의 주민이 있으며 은성교회는 장년 40명, 학생 30명이 출석하고 있다. 전도단원들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고 저녁 부흥회, 축호전도와 상담, 의료 진료, 미용·방역 등 지역 봉사활동과 함께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전도에 사명을 가지신 많은 분들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파송되는 농촌전도단을 통해 농촌의 주민들에게 생활용품 나누고자 비누, 치약, 수건, 화장품 등 잡화에서 이동도서와 학용품, 기타 일상생활에 소용되는 모든 물품들을 7월 30일(주일)까지 수집한다.

전도단 참가신청서와 일상용품 제출 및 문의는 선교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나 사무국 (☎ 517-7651)으로 하면 된다.

육군 제2훈련소 진중세례식 집례



지난 7월 16일(토)에 사단법인 군복음화 후원회 주최로 매월 거행하는 육군 제2훈련소 세례식에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7명, 장로 10명 그리고 군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여하여 세례식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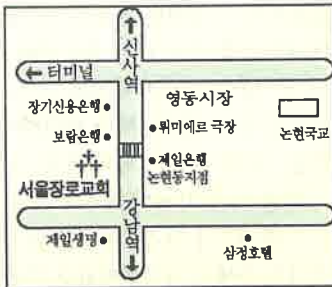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주일 오전 8시 ~ 8시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전교인가족수련회에 예비하신 은혜를 기다립니다.
2.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가물어 메마른 땅에 생명의 단비를 허락하옵시고
농촌주민과 교회들에 새 힘을 주옵소서.